

2014학년도 (제 68회) 후기 학위수여식 졸업생 대표 연설문

안녕하십니까, 자유전공학부 졸업생 권은진입니다.

제68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맞아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2,361명의 졸업생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용기를 내, 남몰래 물어두었던 이야기 하나를 고백하려 합니다.

저는 소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이미 주어진 것’ 이 많았다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됐을 ‘아무 것도 없던’ 팍팍한 현실을 견디며 자라왔습니다. 몸이 편찮으셨던 아버지, 그리고 수십 킬로의 나물 자루들과 매일 새벽을 씨름하셨던 어머니. 숨이 턱 막혀오던 이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다 되뇌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참고서 한 권 사기가 망설여져, 동네 서점 앞을 몇 시간이나 서성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저 주머니 속 작고 여린 손을 수없이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게 멈칫거리고, 넘어지고, 무너졌던 그 무수한 순간마다 눈앞은 아득히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아주 촌스럽고 진부하게도 머릿 속에선 바로 이 ‘서울대학교’ 가 늘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저에겐 풍요로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해주던 든든한 희망의 다섯 글자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5년 전, 이제 막 그 문을 열었던 자유전공학부의 1기 입학생이 되던 그 날, 저는 몹시도 들떴고 두려울 만큼이나 설렘했습니다. 그렇게 관악을 찾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가 저에게 줄 많은 것들을 그리면서 말입니다. 이 엄청난 ‘서울대학교’ 의 학생이 되기만 하면 제겐 많은 것이, 선물처럼 그저 주어지리라 꿈에 한껏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갖 기대와 설렘으로 찾았던 입학식에선 당황스러운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나무 푯말 하나 갖추지 못했고, 책상 몇 개가 임시로 놓인 간이 행정실이 전부였던 자유전공학부는 채 한 살이 되지 못한 신설학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체육관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동기들과 함께 판자 위에 ‘자유전공학부’ 라는 6글자를 써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대학교’ 에 오기만 하면, 결코 다시는 마주하리라 생각지 않았던, 아득한 막막함과 재회했습니다. 이 낯선 관악에서 또 다시 ‘아무 것도 없이’ 바닥부터 무언가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저 ‘서울대학교’ 학생이 되기만 하면 주어지리라 생각했던 장밋빛 미래는 멀어지는 듯 했고 아득한 막막함만이 다시 성큼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약 5년이 흐른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무 푯말 하나 조차 없었던 그렇게 ‘이미 주어진 것’ 단 하나 없이 ‘아무 것도 없던’ 자유전공학부에서 저는 놀랍게도 아주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아무 것도 없으니 이제 무엇이든 해보라 말씀하시는 교수님들, ‘아무 것도 없으니 뭐든 하면 우리가 최초!’ 라며 쾌활한 자극을 주

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몇 년 치의 수강 편람을 뒤져 가며 '인문소통학'이라는 저만의 전공을 설계했고, 다양한 기관의 인턴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만났습니다. 500여 시간에 달하는 국내외 봉사활동을 거치며 '타인의 고통'에 대해 목격하고 고민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았지만, 또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이 서울대학교에서 그렇게 저는 더 넓은 세상을 품으며 '타인의 삶'과 함께 공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5년 전 그 날, '서울대학교'는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장밋빛 미래를 산산이 부서뜨렸습니다. 대신, 그저 '서울대학교' 학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론 마냥 쉽게 무언가를 약속해주진 않겠다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득한 막막함을 전해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방황하고 좌절하는 매순간 '서울대학교'는 제게 놀라울 만큼 많은 기회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렇게, 정해지고 약속된 것이 아무 것도 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 곳 서울대학교에서 얻은 가장 값진 가르침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무 것도 없는', 그렇기에 한없이 아득하고 막막한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은 여전히 그 아득히 막막한 길 위를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저는 그 끝에 찾아 올 가슴 벅찬 성장을, 그 희망에 눈 돌리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든 있을 수 있다'는, 서울대학교가 제게 남긴 그 값진 가르침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곳을 떠나 우리는 '주어진 것' 하나 없이 '아무 것도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정답 없는 세상에서 때론 어디로 가야할 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지금껏 겪은 것보다도 더 깊고 무거운, 아득히 막막함이 몰려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향을 잃고 헤맬 때마다 서울대학교가,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한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남긴 그 값진 좌절과 희망의 기억들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때로 '서울대학교 나와도 별 거 없네'라는 말에 휘청일 그 때마저, 그저 여유 가득한 미소를 지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좌절의 순간은 곧 그 무엇이든 있을 수 있다는 희망과 닿아있다는 것. 서울대학교가 우리에게 남긴 그 가르침을 떠올리며 말입니다.

슬프고, 괴롭기에 아득히 막막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한없이 설레고 기쁠 수 있을
'아무 것도 없기에' 또한 '그 무엇이든 있을 수 있을'
우리가 삶을 향해 아낌없는 기대와 응원을, 그리고 용기를 보냅니다.

다시 한 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잊지 못할 이 순간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